

미래형 신도시 조성, 분산에너지 확보가 관건

남구 행암동·북구 오룡동 에너지 특화단지 공모 신청
에너지단지서 자체전력 생산... 최첨단 기업 유치 선점

자동차 생산기업과 인공지능(AI) 업체를 집적화하는 광주 미래차·빛그린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확보가 관건이다. 광주시가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도심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단지(넷제로·Net-Zero)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석유·원자력 발전 방식 대신 태양광·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소용량 발전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남구 행암동(2.09㎢·63만평), 북구 오룡동(6.63㎢·200만평) 2개 지역을 신청했다.

전국 11개 지자체가 145억원의 국비로 분산에너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암동의 태양광 발전단지과 오룡동의 10㎿/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강점으로 내세운 광주시는 정부 특화지역에 선정되면 분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 생산·설비 관련 기술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도시의 꿈인 '넷제로 분산에너지 허브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넷제로 분산에너지 허브단지는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하는 기회다. 광주시는 2조5000억원의 규모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주시는 분산에너지 허브단지에 차세대 전력망인 직류 기반 통합발전소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인공지능·모빌리티 기업을 집적해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하는 미래차·빛그린국가산단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통합발전소는 기존의 교류(AC) 전력망 대신 직류전력을 고전압으로 변환해 송전하는 방식이다.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자기기, 배터리 등에 적용하고 있다.

넷제로 분산에너지 허브단지를 조성하면 광주에 동지를 둔 모빌리티·인공지능 기업들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전남의 분산에너지 발전단지에서 광주로 연결되는 광역전력망(MVDC)을 구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사진=광주시청 제공

축해 모빌리티 배터리 모듈·시스템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미래차·빛그린국가산단 9.9㎢(300만평) 일원에 조성하는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기업은 신기술·신사업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특화단지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거래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상풍력·태양광 분산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전력망도 추가 설치한다.

또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반 배터리 모듈 시스템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설계·평가·인증 통합 지원센터 구축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개발해 선순환 구조도 완성할 계획이다.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넷

제로 분산에너지 허브단지를 조성하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광주는 물론 타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중심의 최첨단 기업 유치를 비롯해 광주 중심의 차세대 분산전력망 산업융합클러스터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며 "이차전지에서 제외된 배터리 모듈 시스템 특화단지를 설치하면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미래차국가산업단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가 모빌리티·인공지능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 확보가 전제조건인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길 기자



‘더현대 광주’ 연간 방문객 3000만명 “복합쇼핑몰, 소상공인에도 기회될 것”

광주시,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
커피·제과 제외 모든 업종서 매출액 증가 등 긍정영향
피해 우려 업종엔 특례보증 확대 등 상생 방안도 제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연구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고회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관계 공무원,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간 보고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조준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조 교수는 ▲최근 5년간 광주시 업종별 매출액 및 이용객 분석 ▲대전·대구 등 타 지역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 사례 조사 ▲대규모 점포(1차 : 더현대 광주) 입점

이날 중간 보고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조준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조 교수는 ▲최근 5년간 광주시 업종별 매출액 및 이용객 분석 ▲대전·대구 등 타 지역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 사례 조사 ▲대규모 점포(1차 : 더현대 광주) 입점

연구 결과, 광주시 상권은 전반적으로 외부고객의 유입이 낮은 내수형 상권(2024년 기준 광주시내 점포 이용객 : 광주시민 81%, 타 지역민 19%)으로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할 경우 상권도 같이 쇠퇴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대구 등 타 지역 복합쇼핑몰이 해당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서

는 화장품과 커피·제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매출액이 상승했고, 타 지역민 이용 비중도 4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광주시 여건에 적용하면 ‘더현대 광주’ 반경 5km에서는 화장품 업종을 제외한 슈퍼마켓, 음식점, 의류·패션·잡화, 커피·제과, 가전·가구·생활잡화 업종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반면, 광주시 전체적으로는 커피·제과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특례보증 확대 등 다양한 상생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더현대 광주”의 연간 방문객 수는 3000만명이며, 이 중 주변 점포 동시이용객은 1900만명으로 추산됐다. 시설 투자(1조2000억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2조364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996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2600명으로 추정되며, 점포 운영(1조1994억원)에 따른 연간 생산유발효과 2조311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135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8951명 등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스타필드 광주 등 3개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9조40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설 투자(6조9466억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3조684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조7865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2939명으로 추정되며, 대규모점포 운영(2조9704억원)에 따른 연간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723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5100억원, 취업유발효과 4만6933명으로 분석됐다.

조 교수는 앞으로 신세계백화점 확장, 스타필드 광주 입점 등이 광주시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할 계획이며, 거리별(3km, 5km, 10km), 업종별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최적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및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회당 4만5000원씩 연 최대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경제활동

광주시, 한부모가족 가사·주거 돕는다 가사서비스 연 135만원·임대보증금 지원... 연중 신청 가능

또는 학업 중인 한부모가족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중의 가사도우미 플랫폼(웹 또는 앱)을 통해 이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 가정은 월 1회 모니터링 및 연 1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광주남구가족센터(070-4204-7939,

070-4262-7996, 070-4208-8212)로 하면 된다.

또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 현재 광주지역에 총 45호의 임대주택이 마련돼 있으며, 입주자는 평균 350만원 내외의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 월 15만

광주시, 청년 맞춤형 고용정책 탐방 프로그램 운영 오는 11월까지 매일 두번째 수요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 실시

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청년 구직지원 통합플랫폼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동명·상무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과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력·추진하는 이번 탐방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정책 활용도를 높여 구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탐방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분야 현직자 특강 ▲청년고용정책·청년지원사업 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미래내일일경험 등) ▲고용센터 정책 스탬프 투어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일 두 번째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누리집(jobstation.co.kr) ‘동명센터 바로가기-청년정책의 이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 당 최대 3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062-531-1935)로 하면 된다.

권운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고용정책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구직역량 강화는 물론 청년정책 이용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를 곡성